

동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 두 발 언

2016. 2. 25. (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른 시간에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발족되는 '금융위 움부즈만'의 장용성 이사장님과

금융위 비상임위원이신 정순섭 교수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장의 Player인 금융회사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주도할

민간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함과

동시에 2016년 금융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II. 금융개혁회의 성과와 금융개혁추진위 운영방향

작년에는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가
97년 금융개혁위원회 이래 18년만에 출범하여
장장 9개월간 금융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7차례 회의를 거쳐

검사·제재개혁, 거래소 개편 등 자본시장개혁,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개혁 등
70개 세부 실천과제의 대부분을
심의·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과 혁신의 새로운 틀과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과 시장의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꾸어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였고

기술금융과 핀테크는 금융권에 정착되고 있고
계좌이동서비스, 클라우드펀딩, ISA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보다 지속적인 강도높은
규제·제도·관행 개선을 요청하였고,
특히, 금융회사도 보다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여,

새로운 개혁 과제를 심의·자문하는 한편,
작년에 마련한 금융개혁 방안들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철저한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점검을 더욱 내실화하고
'금융위 움부즈만'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점검반은 현재까지 총 520여차례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였고,
앞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역 소비자 등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금융위 움부즈만'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고,

지난 1월에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금융 민원제도, 소비자보호 제도 등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Ⅲ.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

위원 여러분,

올해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제2단계 금융개혁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겠습니다.
작년에는 금융개혁 방안과 틀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였다면,
올해는 이를 구현하고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과 같이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진출 대상국의 금융·인프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KOTRA 등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해외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해외 데모데이 등을 통해
성공사례도 발굴·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하여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증권 공모제도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마련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처리가 임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하위 규정 정비와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금전제재 현실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인 10여개 법안을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全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위원 여러분,

최근 몇년간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업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조업은 3차 혁명에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혁명(Industry 4.0)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고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포함한 거시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알고 대비를 하면 살고, 위기에
둔감하여 안주하면 죽는다¹⁾”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憂患 死於安樂) - 맹자 고자하편(告子下篇)

이를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쌓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와 함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